



마리아 제지나 모스크바국립대 역사학부 교수 초청강연회 :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공화국 갈등의 역사와 해결 방안

지난 4월 20일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와 공동주최로 마리아 제지나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역사학부 교수를 모시고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공화국 갈등의 역사와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본 강연에서 제지나 교수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공화국을 둘러싼 분쟁에 잠재된 역사적·사회적 원인에서부터 직접적인 갈등의 전개와 심화 과정, 또 이후의 국면 진정화 노력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강연을 마쳤다.



마리아 제지나 교수는 이 갈등에는 러시아, 미국, 유럽 등 주변국들의 지정학적, 경제적 관심이 얽혀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먼저 러시아와 접해있는 도네츠크, 루간스크 공화국에서 발생한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지역적·역사적 특수성을 꼽았다. 돈바스 지역은 석탄매장지로 경제적으로 발전된 러시아의 산업 지역 중 하나였다. 이 지역은 러시아 혁명기에 러시아공화국이 아닌 우크라이나공화국으로 편입되면서 도네츠크 주가 되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인구밀도, 민족구성, 경제력 등 사회적 측면에서도 지역별 차등을 보이고 있는데 돈바스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러시아인의 비율이 높고 경제적으로도 발전하여 임금 수준이 높은 곳이다.



우크라이나 내부의 이러한 여러 잠재적 갈등 요소들은 소련 붕괴 이후 표면화되어,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파업이 일어나는 등 계층 간 갈등이 가시화되었으며, 공산주의의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가 부상하였다. 결국 현대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친서방을 표방하는 중·서부 우크라이나와 친러 성향의 남·동부 우크라이나로 분리되어 있다.

이 분쟁의 씨앗은 결국 2013년 유로마이단 사건으로 분출되었다. 유로마이단의 직접적인 원인은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의 EU협정 거부 선언이었다. 중서부 우크라이나인들은 서방의 경제력을 동경하여 협정 체결을 지지하였으나 야누코비치가 조인을 거부하자 반발하여 거리로 나섰다. 이 시위는 평화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경찰력이 투입되면서 무력충돌로 변질되었다. 반대로 남동부 지역은 이들을 규탄하였다. 사태가 심화되자 정부는 정국을 진정시키기 위해 나섰다. 2014년 2월 21일 EU의 중재로 조기 대선이 합의되면서 사태는 종식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무력 사용을 예고하는 급진세력들의 즉각 퇴진 요구에 위협을 느낀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21일 저녁 갑작스럽게 키예프를 떠나면서 유로마이단 세력이 정부를 장악하였다. 정권 교체 이후 소수민족 언어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던 법안이 폐지되었다. 이 법안의 폐지로 인해 러시아어가 공용어 지위를 잃게 된다. 이에 남동부 지역에서부터 시위가 확산되었고, 키예프 정권에 반대하는 사회단체들이 조직되었으며, 곧 평화시위는 무력충돌로 변하게 된다. 4월 7일 시위대는 주정부 건물을 점거하고 독립을 선언한다. 5월에는 도네츠크인민공화국의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높은 투표율로 치러진 국민투표결과 89%의 주민들이 독립을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단 하나의 UN 국가도 투표결과를 승인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도네츠크에 세워진 정부를 테러조직으로 규정하고 분리주의자를 겨냥한 대테러작전을 시행했다. 한편 러시아 정부의 태도는 보다 복잡했다. 도네츠크 주민들은 불과 몇 달 전 이루어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보고 러시아가 그들을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도네츠크 주민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정부 문서를 인정하면서도 국민투표결과를 명확하게 승인하지는 않았다.

이후 상황은 사실상 전쟁이었다. 추정에 따르면 러시아군 출신의 전문장교가 포함된 도네츠크 군대와 그보다 몇 배 많은 수의 우크라이나 군대가 교전했고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그 규모는 정확한 추산이 어렵지만 UN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3만 명이 넘는 사상자와, 150만 이상의 이주민이 발생했고, 75만 이상이 국외이주하기도 했다.

국면을 진정시키기 위해 중재세력이 등장했고 1·2차 민스크 협정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권력 분권화를 논의했다. 이후 대규모 무력충돌은 사라졌으나 여전히 긴장상태 속에 소규모 교전이 이어지고 있다.

도네츠크 지역은 이제 안정화 노력을 기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작된 국가건설 작업은 현재 거의 완



성 단계에 이르렀다. 사법, 행정체계가 정립되었고 헌법이 제정되었으며 여권도 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도네츠크에 경제제재를 가하고 금융 업무를 금지시켰다. 이 결과 도네츠크 지역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 화폐를 쓰지 않고 루블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경제적으로 러시아에 더 종속되게 하는 모순적 결과를 낳았다. 한편 키예프와 도네츠크 간의 무역은 필요에 의해 이어지고 있었다. 2016년 우크라이나의 경제무역봉쇄 조치가 있었다. 도네츠크 주민의 삶은 러시아의 인도적 지원에 따라 다소 안정된 상태이다. 물자가 풍족하지는 않으나 유통되고 있고, 전문 인력이 부족하지만 학교와 병원도 운영되고 있다.



향후 이 사태의 출구 방안은 불분명하다. 2017년 우크라이나 표트르 포로셴코 대통령은 돈바스 전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려 했다.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평화유지군을 접경지역에만 주둔시킬 것을 요구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대테러작전' 대신, '돈바스대통합작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일시적으로 점령된 지역을 탈환하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다. 이에 돈바스 주민들은 연방제를 요구하며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로의 통합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분쟁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나뉘어 있기에 이 지역의 갈등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제지나 교수의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우크라이나가 연방제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크림반도 반환을 요구할 경우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인지 묻는 양승조(숭실대학교) 교수의 질문에, 발표자는 여러 현실적 문제들이 얽혀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러시아연구소·러시아센터

Institute for Russian, East European & Eurasian Studies

РУССКИЙ ЦЕНТР ФОНДА РУССКИЙ МИР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답했다. 즉 크림반도 주민들은 문화·민족적으로 러시아에 대해 깊은 친연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한정숙(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는 브렉시트로 EU가 원심력의 경향을 보이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EU 가입보다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동부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발표자는 우크라이나는 EU 가입을 통해 부유한 유럽으로 편입되리라 기대하고 있지만 EU로서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우크라이나가 EU에 실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모두 분쟁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양국이 가까워질 가능성은 낮다고 예측했다. 공식적으로는 교전상태이지만, 우크라이나와 도네츠크 관료들 사이에 석탄과 관련된 결탁, 정경유착이 존재하는지 묻는 이경완(서울대 노어노문학과) 박사의 질문에 강연자는 부패한 결탁은 경제 부문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공식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범식(중앙아시아센터장) 교수는 러시아의 대 우크라이나, 대 도네츠크 공화국 정책은 어떻게 변화될지 전망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제지나 교수는 대외적으로는 현 분쟁상태를 봉합하려는 모양새를 취하겠지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이 분쟁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을 지원하기에는 경제적, 대외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고, 우크라이나로서는 전쟁 유지가 지속적 대외원조 수여의 조건이 되므로 - 현상이 유지되리라 전망했다.

